

# 분별없는 眞心이 법신보살의 발심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마음이 깨끗해진 지위인 정심(淨心地)는 보살의 수행단계인 10지 가운데 처음 환희지(歡喜地)를 말한다. 이 환희지에서 마지막 10지 법운지(法雲地)까지의 수행과정에 있는 보살들을 법신보살이라 부른다. 이 보살들의 발심은 법신을 증득하고 진심(眞心)을 드러내는 발심이므로 진여를 증득했다 하여 '증발심(證發心)'이라 한다고 본문에서 밝혔다. 증득이란 체험에 의해 증명한다는 뜻이다. 법의 몸 곧 진리의 몸을 얻었으므로 일으키는 행동이 진리 그대로 일지되는 이들이 법신보살이다. 분별의 경계에서 대두되는 객관이 사라지고 주객일여의 경지인 진여가 지혜 그 자체로 남아 있을 때, 이를 법신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신보살들은 어떤 한정된 상황 속에서 제한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를 구현한 이 보살들은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방의 온 세계에 빠짐 없이 도달하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중생들을 이익 되게 하기 위해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한다. 본문에 '문자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앞세우지 않고 몸소 실천적인 자세를 취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해 준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가지가지 많은 방편을 보여 주지만 보살들은 누구나 발심이 똑같아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진심 · 방편심 · 업식심**  
**법신보살 발심의 특징**

것은 다같이 3무수검의 수행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생들이 처해 있는 세계와 환경이 다르고 보고 듣는 경계가 다르므로 보살들이 보여주는 행위도 그에 맞게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법신보살들의 발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분별하지 않는 참 마음으로 발심이 된다는 것, 둘째는 애써 억지로 인위적으로 중생을 대하는 것이 아

니라 자연스럽게 두루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편을 잘 쓰는 마음이고, 셋째는 미세하게 일어나고 소멸되는 업식의 마음이다.

진심이란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보는 본가의 근본지를 말하고, 방편심이란 사물과의 관계에서 평등성을 발휘하여 실천적으로 닦아 완성시킨 구경각(究竟覺)의 후득지(後得智)를 말한다. 두 가지 지혜가 아뢰야식의 본식을 의지하는데 삼세(三細)의 미세한 단계인 전식(轉識), 현식(現識)의 과정을 생략하여 그냥 업식(業識)이라 한 것이다. 여기서 업식의 일어나고 소멸함을 말하는 것은 앞의 두 지혜가 일어날 때 이 업식이 미세하게 일어나 관계하므로 부처님 지혜의 순정(純淨)한 덕성이 발휘되는 것과의 차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 이 보살들의 공덕이 원만하게 성취되면 물질적 · 형상적(形相的)으로 가장 높이 완성된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성을 보여주는데, 생각 자체가 지혜 그대로 일지되어 무명이 단박에 끊어져버린다. 이 때의 지혜를 모든 것을 다 아는 일체종지(一切種智)라고 부른다. 이 지혜로운 보살은 불가사의한 능력을 발휘하여 온 누리의 중생들을 이롭게 해 준다. 색구경처럼 세계의 가장 높은 가장자

리로 물질적 형태의 세계에서 마지막 한계에 도달하여 색이 끝나는 곳으로 물질적 형태 안에 야기되는 모든 고통이 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은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세계와 중생도 끝이 없는 것이며, 동시에 중생의 마음이 집이나 행동의 차이도 끝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한계를 정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무명이 끊어지면 의식활동이나 상상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주와 세계와 중생과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가짐과 행동을 철저히 알 수 있는가? 또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모든 대상의 세계는 본래 우리의 그릇된 의식에 의해 의식된 채 우리를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망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이것저것을 구별 지어 서로 대치시키기 때문에 마음 안에 분할하고 구분하는 등의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잘못 의식되어진 관념의 허위성을 떨쳐버리고 오직 탁월한 지혜의 기능을 발휘하여 온갖 방편을 베풀고, 중생들의 능력 정도에 알맞은 적절한 양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므로 이를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곧 일체종지라 한다 하였다.

## 빈 뜻의 따오기처럼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다.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고집과 집착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승(比丘僧)'은 독신수행승을 말한다. 당연히 부양할 처자식이 없고 본인 이름으로 재산 따위가 따라다닐 일이 없을 터이다. 출가(出家)이전의 상속받은 재산과 모야 돈이 있더라도 출가와 동시에 사찰에 헌납하거나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개운하게 수행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출가후 비구승의 신분으로 수행해오며 재산이 생기고 돈의 부피가 늘어난 사람도 있다는 서글픈 현실이다. 하여, 조계종 소속의 사찰주지의 품신 서류엔 본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등의 일체 재산을 조계종단에 귀속시키고 사후(死後)에도 빈 · 형사상 종단 재산임을 확인한다는 본인의 친필

에서 내미는 현찰이든 두둑한 봉투를 사양 않고 당연히 받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들에게 법보시(法布施)는 없고 입 노동 대가를 챙기는 속물 근심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승(?)이 죽었을 경우에도 장례 기간이 닷새일 경우는 허다하고, 상여와 만장은 유교문화임에도 꽃상여 장식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만장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 고승의 가는 길을 번거롭게 하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해 조문 온 신도와 스님들한테서 조문 방명록을 내밀며 현찰이든 봉투접수를 강요하듯 버티고 있는 풍경도 사라져야 할 부끄러운 일들이다.

승려의 노후대책은 모으고 숨겨놓는 비상금이 아니라 수행력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경전 중심으로 진리를 일깨워 주는 법음(法音)이 울려 퍼져야 한다. 독신 수행승은 부양의무를 지닌 가족이 없으므로 떳떳하고 당당

## 수행승의 노후대책은 수행력에 있다 스님에게 개인 재산이 왜 필요한가

사인이 담기도록 되어있다. 슬픈 일이다. 출가수행승이 개인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부동산 따위가 그림자라도 따라다닐 수 있겠는가?

신도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니며 사찰을 짓고 포교당을 세운 능력 있는 스님이 있다고 하자. 그 스님이 짓고 세운 사찰과 포교당은 당연히 소속종단인 조계종의 재산으로 등 록되어야 하고, 남은 돈이 얼마이든 그 돈은 개인통장이 아닌 공금을 관리하는 통장에서 관리되며 때때로 그 관리내용을 떼떳하고 당당하게 신도단체에게 밝혀야 한다.

설령, 어느 신도가 있어 개인적으로 재산을 주지 스님에게 개인용으로 주었을 경우에도 양심의 저울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만 사용하고, 남은 재산(돈 포함)은 종단에 등록 된 사찰재산으로, 공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승려 생활이 직업이 될 수 없듯, 주지 생활로 개인재산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상식이 상식의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 청법회에 임하는 유명(?) 스님들이 법회 후 설법의 대가로 주최 측

에게 집착을 벗어나 버린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승려가 죽은 후 이 절(寺), 저 절(寺)로 옮겨 다니며 지내는 49재도 사라져야 할 아름답지 못한 문화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중국 불교, 우리나라의 이조 중령에 이르기까지 승려의 49재 흔적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49재의 의미가 가진 분의 뜻을 기리고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것이라면 수행승은 수행자답게 떠난 뒤의 마무리도 개운하여 번거로움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고승일수록 사찰을 옮겨 다니며 일주일에 한 차례씩 재물을 차려놓고 재물을 옮기니 부끄럽고 사라져야 할 배무른 행위이다.

비구승이 해마다 꼬박꼬박 생일상을 챙길 정도이니 승가(僧伽)의 세속화에 빈 뜻이 속절없이 지키는 따오기를 떠올리게 된다. 불교계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사라지고 신도들이 실망해 나날이 줄어든다면, 물이 없는 빈 뜻이 될 터이다.

빈 뜻이 속절없이 서성이며 지키는 따오기의 처량함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길 바랄뿐이다.

# 보살의 마음은 항상 사랑이 넘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 보살이 걸인을 대하는 자세

如巨富人多饒財寶千子具足隨意恣與愛念歡喜。不及菩薩於乞者心大歡喜。菩薩見乞者時心大歡喜。勝於他人見所親者。若見前人得多財寶。隨心恣意而自高。菩薩見之倍生歡喜若見乞者發言時。菩薩施滿心重。耳聞乞言如飲甘露。若聞乞言心生愛重無能壞者。若聞具足則壞其愛心。菩薩於乞求者常生愛念。

(여기부터다)요재보친자구족수의자여애념환희. 불금보살여걸자심대환희. 보살견걸자시심대환희. 승어타인견소친자. 약견전인득다재보. 수심자의이재모\*합고. 보살견지배생환희약견걸자발언시. 보살시갈심중. 이문걸언어유감로. 약문걸언심생애중무능피자. 약문구족귀기에십\* 보살여걸구자상생애념.)

번역  
가령, 큰 부자가 재물과 보물이 많고 넉넉하며, 천 명의 자식이 있어서 마음껏 주고 사랑하며 기뻐할지라도 구걸하는 이를 대하는 보살 마음의 큰 기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를 봤을 때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다른 친애하는 이를 만났을 때보다 뛰어나다. 만약 앞에 있는 사람이 많은 재물과 보화를 얻어 마음에 하고픈 대로 하면서 스스로를 높여도, 보살은 보고 배나 기뻐합니다. 만약 구걸하는 이를 보거나 구걸하는 말을 할 때도 보살은 감동한 마음으로 가슴 베푹니다. 구걸하는 말을 귀로 들으면, 단 이슬을 먹는 것같이 합니다. 만약 구걸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사랑을 거둬 내거니와 능히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만약, 만족하게 갖추었다는 소리

를 들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질지 언정, 보살은 구걸하는 이에게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해설  
보살의 마음은 자식을 위한 기쁨보다 구걸하는 이가 만족함을 얻고 기뻐하는 것이 더욱 좋다. 또한, 어떤 친애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자신에게 구걸러 온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즐거울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재물을 얻고 스스로 높인다 할지라도 결코 인연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부유하게 된 그 사람을 보게 되어 기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살은 구걸하는 사람을 보거나 구걸하는 말만 들어도 구걸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감동한 마음을 낸다.

구걸하는 말만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으니 그 자비로운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만족하게 갖추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겠으나, 구걸하는 이를 향한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난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족하게 갖추었다'는 본문이 구걸하는 이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제 삼자가 하는 말인지 분명치 않다. 듣는 이도 보살인지, 또는 제 삼자가 들었다는 것인지도 문장의 구조상 알기 어렵다.

다만, 제바라보살이 <대장부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앞의 문장 등으로 나름 짐작해 본다면, 남들이 보살을 볼 때 보시의 마음이 만족하게 갖추었다고 말하고, 보살 자신도 만족하게 했다는 말을 남들에게 하게 될 때 사랑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추측해 본다.

즉, 보살은 보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한 생각을 품어 그만두지 않는 한 구걸하는 이를 향한 사랑이 무너지 리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살은 보시하는 일에 스스로 만족하는 일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넘칠 수밖에 없으리라.

더불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보살이 삼보에 올리는 감로와 다를 아니다. 내 본래 청정수와 같은 마음을 감로로 변화시켜 올리는 예경이다. 지극한 정성이 자 불성의 발현이다.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마산 불광사
-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131-2
- 법 명 : 혜천 (김유진)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 서울 근교에 계시는 주지스님 읽어보세요!!

과목 : 사주, 기문둔갑, 자미두수, 타로카드

- ◆ 2016 정몽준의원 FIFA 회장 선거 적중
- ◆ 2015년 국운 분석 적중(현재까지 적중)
- ◆ 2014년 최대 이번 이철영 국회의원 적중
- ◆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3개월 전에 분석 적중
- ◆ 2014년 국운 분석 적중(세월호 사건등)
- ◆ 2014년 박지성 선수 은퇴 1월까지 적중
- ◆ 2013년 국운 분석 90% 적중
- ◆ 2012년 박근혜 대통령 6개월 전에 분석 적중
- ◆ 2012년 국회의원 김용동 의원외 9명 적중
- ◆ 2009년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월까지 적중
- ◆ 2009년 노무현 전대통령 4-5월 事故數(예언)
- ◆ 2007년 이명박 전대통령 적중

역(易)을 20년간 하면서 사주, 기문, 육임, 육효, 자미두수, 풍수 등 역의 전 분야를 공부하였으며 제가 필요한 사찰에서는 전화주시면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 수많은 사찰들을 적응한 것은 토의 세밀한 분석과 정확한 用神법, 기문둔갑의 用運 분석이다.
- 홈페이지 : 네이버, 다음, "인당명리" 검색하면 됩니다.
- 사주, 기문, 실전 USB로 쉽게 공부하기(홈페이지 참조)

인당역학연구소 010-2224-6310

# 불교특별강좌

(사)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21세기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지적 성숙과 불교의 대중포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불교특별강좌를 개최합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제2분기 강좌 개설 기간 : 2016년 6월 7일 개강 8주간 수업(월요일 수업은 6월 13일부터)

▶ 개설강좌명 ◀

강사	강좌명	요일	시간	장소
이태승	산스크리트 금강경의 이해	월	오후 7시 ~ 9시	본원강의실
최성규 이은희	살담법자의 이해 및 실습	월	오후 4시 ~ 6시	상동
김영권	불교위패사나 전통의 이해와 실천	수	오전 10시 ~ 12시	상동
유경자 최성규	불화(佛畵)의 이해와 실습	화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상동

강사 소개  
이태승 (본원 원장,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최성규 (한국현대불교미술협회 이사장, 위덕대 겸임교수)  
이은희 (동방대학원대학 학부과정 강사, 미술대전 특선 및 대상 수상)  
김영권 (마하위패사나명성원 원장, 위패사나뒤다선원 지도법사)  
유경자 (한국미협 불교미술분과 위원장, 위덕대 박사과정)

수 강 료 : 각 강좌 당 100,000원  
수강접수 : 2016년 5월 15일부터 ~  
접수처 및 문의 : 한국불교연구원 사무국 (Tel. 02-762-5624)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서울시 중로구 동화로 11가길 59 현대드레비앙 148

# 제11기 풍수건축 인테리어 전문가 과정 강의안내

진중력이 모이는 곳에 책상을 배치하고, 복록수의 기운이 모이는 곳에 침대를 배치하는 것이 바로 풍수인테리어의 핵심이며,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놓는 것은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강의 목적**  
한정된 터에서 풍수적인 논리를 적용해 복된 공간으로 재창조하며, 나아가 공간의 특성과 인간의 특성을 조화하여 건강과 복, 록, 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강 대상**  
도시공간설계 및 개발담당 공무원, 부동산 거래 및 관리 담당자, 공인중개사, 건축사, 토지감정평가사, 조경설계 및 시공업자,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자, 부동산 건설팀 담당자, 건축예정 일반인,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업자, 기타 풍수건축 및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개강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29일(일요일) 14시  
경기도 광주시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

**교육기간** 2016년 5월 29일 ~ 2016년 7월 3일 (총 6주)

**강의시간** 이론 강의 : 일일 3시간(6회), 실습 평가 : 5시간(1회)

**강 사** 김 경훈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장, 사단법인 행운풍수지리학회 명예이사장)

**수강료 및 입금계좌** 교육비 : 600,000원 (수강료, 교재비, 패철, 수액 탐사봉비 포함)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모집인원** 20명 이내 (선착순 모집) \* 수강료 입금 순

**신청 및 문의**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  
☎ 031-798-4595 / 010-7314-5336

\* 자세한 사항은 http://www.luckyfi.com의 <개강예정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행운풍수지리학회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